

# ‘K-푸드+ 수출’ 130억 달러 돌파 “불리한 대내외 여건 속 6% 성장”

농식품부, 수출 9년 연속 상승세  
미국·유럽 등 주요 권역서 약진  
라면·쌀가공식품 등 성장세 주도  
비건·글루텐프리 식품 인기몰이



지난해 9월 홍콩에서 열린 K-신선식품박람회의 모습.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난해 ‘K푸드+’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0억 달러를 넘어섰다. 라면, 쌀가공식품, 김치 등의 품목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K푸드+란 농식품에 전후방산업(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을 더한 개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K푸드+ 수출액이 전년대비 6.1% 증가한 130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농식품 수출액이 99억8000만 달러, 전후방산업이 3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 수출은 전년에 비해 9.0% 늘어났다. 이는 최근 3년간 수출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증가율이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 2015년 이후 9년 연속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동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2023년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이던 일본 엔화의 약세,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6.1%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품목별로는 라면·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이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신선식품 중에는 김치가 1억6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드라미·영화 등 K-콘텐츠에 자주 노출

되고, 라면먹기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수출 대상지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텍사스주 내 대형유통매장 입점에 성공하면서 수출이 70% 넘게 늘었다. 가장 높은 성장세(+38.4%)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3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는데(+51.0%), 글루텐프리 건강식 및 간편식 등이 선호도가 높았다.

김치는 1억6000만 달러 수출되며 역대 최대 실적인 2021년의 1억5000만 달러를 3년 만에 넘어섰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신규 시장에 비건김치, 상운유통김치 등 신제품을 소개하고 입점매장을 확대한 것이 증가(+5.2%) 요인을 작용했다.

농식품 수출을 권역별로 보면 미국을 비롯해 중국, 아세안, 유럽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늘어났다. ▲냉동김밥 성장을 주도한 미국 ▲건강식 관심이 높은 유럽 ▲라면 수요가 증가

한 중남미 등지에서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액 1위 대상지는 미국(15억9000만 달러), 2위는 중국(15억1000만 달러), 3위는 일본(13억7000만 달러)이었다.

미국은 2023년 3위 시장에서 2024년 1위 시장에 올라섰다. 과자류, 라면, 냉동김밥 등이 사회누리망(SNS)에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은 동시에, 현지 스포츠 행사(야구·골프대회 등) 및 대학과 연계한 K-푸드 체험 기회를 통해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 아울러, 현지 대형유통매장(코스트코 등) 및 소매점(파이브달러 등) 입점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전후방산업 분야는 수출액 비중이 큰 농기계와 스마트팜 수출이 줄어든 반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동물용 의약품, 농약 등 유망품목의 수출은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천연가스 인프라 적기 구축·효율적 운영”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시무식서 4가지 핵심과제 천명



공급망을 튼튼히 구축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설비 운영으로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천연가스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천연가스 인프라 적기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설 이용률을 한층 높여 국민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지난 6일 대구 본사에서 전 임직원들과 ‘2025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천연가스 시장서 압도적 경쟁력 확보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및 천연가스 인프라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청렴하고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확산을 올해 추진할 4가지 핵심과제로 천명했다.

최 사장은 신년사에서 “어떠한 도전에도 당당하게 맞서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가스공사로 거듭나겠다”며 “지난 2년 간 숱한 고난을 이겨내며 향상시킨 경쟁력을 기반으로 2025년에도 국민과 고객,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우선 지속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최적의 LNG도입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구축, LNG

아울러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저탄소 LNG 도입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최사장은 마지막으로 전 임직원이 청렴윤리경영의 가치를 되새기고 성과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 받고 활력이 넘치는 기업 문화를 꽃피우자고 당부했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가 2025년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열린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지혜롭게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변화무쌍한 대내외 환경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가스공사가 되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검역본부 소비자 대상 홍보 캠페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근절에 나섰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차단에도 나섰다. 차단 건수는 2021년 52건, 2022년 71건, 2023년 429건, 2024년 1368건 등으로 급증했다.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전문가가 판매해야 한다.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형사 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주의도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위조품이

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위험도 있다. 당국은 또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이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했다.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중소기업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 강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일하는 부모 위한 육아 환경 개선  
부부 육아휴직 급여 최대 5920만원



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자녀였다.

김 장관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아주대병원을 전국 최초로 종합병원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육아지원 3법 개정과 올해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인상 등 정부의 육아 지원 확대 정책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 긴급 돌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0억원 규모의 인건비 예산을 신설했으며, 오는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돼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12개월 사용시, 근로자는 기존 1800만원에서 2310

만원으로 약 5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1년간 각각 최대 296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5920만원의 급여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되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지원금을 도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원씩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 장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육아 환경 개선과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세종=김대환기자 kdh@

## “새해맞이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국립공원공단 실족 사고 등 예방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새해를 맞아 산행을 계획 중인 탐방객들에게 빙판길 실족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월에 발생한 산행 사고는 총 25건으로 이 중 92%인 23건이 실족으로 인한 골절과 상처였다. 또한, 무리한 산행으로 심장 돌연사가 발생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은 몇 가지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우선, 산행 전에는 반드시 날씨와 기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

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상식량과 방한용품을 준비하고, 산행 전에 가벼운 체조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산행 중에는 안전장비를 꼭 챙겨야 한다. 탐방로가 얼어 있는 겨울철에는 아이젠과 스틱 같은 장비가 필수적이며, 낮은 기온으로 인한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대비해 여벌의 옷, 장갑, 상비약 등을 준비해야 한다.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조난 위험이 높고 구조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탐방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나 위치표지판을 미리 확인해 조난 등 위급상황 시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김대환기자